

문화·예술의 일상화...광주 북구, 지역문화 거점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 '광주문학관' 시화문화마을에 연말 착공 문화센터 개관·갤러리 된 지하보도 등 인프라 개선·확충

광주시 북구가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거듭난다.

당장 북구 문화센터가 개관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고, 또 2021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광주문학관은 단순한 공연이나 집회시설이 아니라 예술창조의 터전으로서 시민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고 확대하는 공공의 장이 될 예정이다. 북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생활유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 문화 거점 기반 마련=광주시민의 염원이었던 '광주문학관'이 북구 각동동 시화문화마을에 들어선다.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문학관은 지역 문화인과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의 주도 아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시화문화마을을 문학관 건립 부지로 광주시에 건의했다.

시화문화마을은 인근에 금봉미술관, 국립5·18민중미술관,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 각화저수지 수변공원 등이 있어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광주시와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는 시화

문화마을을 건립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 내년 12월까지 연면적 2730㎡·지상 4층 규모로 광주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북구는 지난해 연면적 2841㎡(지하1층, 지상 3층)에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오픈갤러리 등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인 북구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이와 함께 북구문화센터는 지역의 문화·교육 발전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연장과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 미술등 문화를 통한 도심 경관 개선=북구는 지난 3월 문흥지하보도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 미술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주민, 학생, 북구미술인 조형연구회가 협업해 150여 점의 작품을 설치, 지하보도를 오픈형 갤러리로 탈바꿈시켰다. '바다섬터 갤러리'로 불리는 이곳은 출입구 계단 6곳에 각각의 테마를 가진 포토존과 지하보도 구간에 아트갤러리와 조형

물 등 다양한 작품이 설치돼 있어 일상에서 주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평가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맞춰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시범사업인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문체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비엔날레광장 연계 보행친화 공공디자인 ▲비엔날레 아트센터 및 웰컴사인 ▲광주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구축 ▲좋은 빛 상징거리화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했다.

비엔날레 상징 조형물인 아트센터(버스승강장)는 현대카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이집트 출신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CNN, CITI Bank 로고를 제작한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폴라 셰어'가 협업한 작품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북구는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시관 주변을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정장은 "그동안 일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광주 단체 5곳 오늘 토론회

정신장애인들이 발제·진행 맡아

자립지원 방안 등 의견 제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말하는 자리가 열린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광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5곳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당사자

의 의견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발제 및 토론 등을 모두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준비하고 진행한다.

광주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직장생활 ▲교육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치료환경 ▲당사자 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 등 5가지 영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각 영역별로 의견을 발표할 5명의 토론자들은 광주지역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박선우(50)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에서도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거"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6월 모평, 지난 수능보다 어려웠다"

광주시교육청 채점 결과, 영어 1등급 절반으로 '뚝'

서울대 인문계 410점·전남대 영어교육과 369점

지난달 치러진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지난달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은 신유형이나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출제돼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어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대폭 상승했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5.51%로, 작년 수능 12.66%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은 국어 1만1201명 중 화법과 작문 8800명(78.6%), 언어와 매체 2401명(21.4%)이었다.

수학 1만1197명 중 확률과 통계 5995명

(53.5%), 미적분 4395명(39.3%), 기하 807명(7.2%)이다.

시 교육청은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 한국사 제외)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410점 내외, 자연 계열 407점 내외에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400점 내외, 자연계열 396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지원 가능 점수는 401점 내외, 광주교육대는 371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 코로나 집중센터 빛고을체육관 이전

광주 서구가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기존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빛고을체육관으로 이전해 예방접종을 한다.

서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나,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 개보수 작업으로 인해 집중센터를 빛고을체육관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됐다.

으로 분석됐다.

내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상당히 높은 점수대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9점, 국어교육과 367점, 행정학과 365점, 경영학부는 362점, 정치외교학과 353점, 국어국문학과 349점 대로 예측됐다. 자연 계열은 의예과 414점, 치의학과 410점, 약학부 408점, 수의예과 402점, 전기공학과 390점, 간호학과 366점, 인공지능학과 362점 대로 분석됐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45점, 국어교육과 341점, 자연 계열은 의예과 411점, 치의예과 408점, 약학과 405점, 간호학과 353점, 수학교육과 341점 내외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시 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실 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또한 이전에 앞서 빛고을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 시설을 구축하고, 개소전에 집중센터 설치기준에 입각한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을 위해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서부경찰서, 제6753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하주차장 잠기면 안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 입구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1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최현배 기자choi@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